

RIIPA(리파) 설립에 있어서

최근,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인 변화가 점차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대두로 인해 전후 레짐이 무너지고 새로운 긴장관계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각국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인터넷 사회에서, 이 상호이해는 일부의 지식층이나 정치가에 제한하지 않고, 폭넓게 일반 분들과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파악하여, 저희는 2019년 4월에 RIIPA를 설립했습니다. 역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교류를 촉진하고, 안전보장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해 가겠습니다.

로고의 의미

"아시아 태평양"에서 "인도 태평양"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보고, 이 광대한 지역의 장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조직이라는 의미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도를 배합했습니다.

"RIIPA의 가운데 'I' 는 붉은 바탕에 흰 검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다모클레스의 검", 즉 보이지 않는 위기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라틴어 "Cogitamus, ergo agimus"는 우리의 모토이고,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Think Tank가 아니라 행동하는 "Action tank"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IIPA의 활동목적

-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평화·번영의 지속에 기여하는 것
- 지적·인적 교류를 통해 "가치 공동체"를 구축·강화하는 것
-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확대하는 것
- 국방 관계자나 전문가 집단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안전보장을 계몽하는 것
- 울타리 없이 학자, 자위관,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 등의 상호교류를 도모하는 것
- 제언뿐 아니라 행동을 수반하는 액션탱크로서 세상에 기여하는 것

RIIPA의 국제공헌

- 인도 태평양 지역 내의 상호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화와 상호이해의 장을 제공한다.
- 관계자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키고, 각층에 의한 대화의 파이프를 구축한다.
- 양국간 정세가 불안정할 때에는 가교 역할을 맡아 상황의 개선에 힘쓴다.